

'광주대표 호텔' 신양파크, 역사 속으로

궂직한 정치·문화 행사장

1980, 90년대 '문전성시'

경영난에 "31일까지만 영업"

1980, 90년대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호텔이었던 신양파크호텔이 문을 닫는다. 신양파크호텔은 "영업상 이유로 오는 31일까지만 호텔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3성급 호텔인 신양파크호텔은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총 87개의 객실과 중식당, 뷔페, 컨벤션, 이발소, 연회장 등 부대시설 갖추고 있다.

최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등 휘트니스 회원들에게는 미리 공지해 폐업을 알렸다. 임대료 내준 골프연습장은 내년 1월까지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양파크호텔은 다만 관광 구정인 광주시 동구청에 아직까지 폐업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휴업·폐업 신고 절차와 함께 폐업시 부대시설 운영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무등산 장원봉 자락에 문을 연 신양파크호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무등산의 풍경과 정당한 공기, 광주 도심에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천혜의 조건으로 고급호텔문화를 선보였다.

특히 궂직한 정치·경제·스포츠·결혼·문

화 행사가 열렸고, 유명 정치인들의 강연장과 유력 인사들의 비즈니스 사교 공간으로도 활용됐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원년(1982년)과 거의 때를 같이해 문을 연 신양파크호텔은 기아타이거즈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 주요 행사장과 프로야구 원정팀 숙소로 쓰여 프로 야구 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한때 호텔 내 빠칭코와 룰렛, 나이트클럽, 안마방 등이 성업하면서 '신양OB파'라는 조직폭력배가 결성될 정도로 광주의 대표적인 유흥지로도 손꼽혔다.

1997년 부도난 뒤 파산절차를 밟은 신양파크 호텔은 2000년 초반 들어 전남도

청과 광주시청이 이전하는 등 구도심 공회화 등이 겹치면서 활력을 잃었다. 2000년 이후 법정관리체제로 운영하다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하고 2002년 7월 문을 닫기도 했다. 이후 5차례에 걸친 경매 끝에 2년 5개월 만인 2004년 12월 재개장 했다. 하지만 상무지구엔 호텔과 유수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현재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주)대양인투스 등은 신양파크호텔을 허물고 지하 3층, 지상 4층, 연립주택13동(96세대) 규모의 고급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무등산보호단체 등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대 캠퍼스 찾아온 원앙 가족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내 연못을 찾은 원앙들이 물속 먹이감을 잡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전국의 산간 계류에서 활동 한 뒤 매년 겨울철 이곳으로 날아들고 있다.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내 연못을 찾은 원앙들이 물속 먹이감을 잡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전국의 산간 계류에서 활동 한 뒤 매년 겨울철 이곳으로 날아들고 있다.

신임 광주경찰청장에 곡성 출신 최관호

경찰 치안감 인사...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인재개발원장으로

최관호(54·사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한다.

정부는 최관호 신임 광주경찰청장 등 치안감 13명의 전보인사를 24일 단행했다.

곡성 출신인 최 신임 광주청장은 광주 송일고를 졸업하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동국대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1991년 간부 후보 39기로 입관해 광주청 경비교통과장, 광주청 1부장, 전북청 2부장, 전남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

획관 등을 지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경찰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규현 경찰청 보안국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최혜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대전지방경찰청장, 김진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박건찬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김기출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 경무담당관 실로 옮겨 공로연수를 건다. 김교태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경무관), 임용환 서울경찰청 차장 직무대리(경무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직무대리(경무관)는 지난 23일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직무대리 직함을 댔다. 같은 날 치안감으로 승진한 강황수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윤동춘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은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이동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성적 요건 없이 장학금 지급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에게 성적 요건 없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장학금이 아닌 분기당 20만~4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자녀 중에서 성적 상위 80%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 탓에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족들 "자격 없다"

김기수 위원 회의 참석 저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24일 오전 9시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의 저지로 김 위원은 결국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특조위도 이날 열릴 예정이던 전원위원회를 31일로 연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신청한 '김 위원에 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제척·기피 신청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달뜨기 06:25
해질 17:26 달질 16:39

메리크리스마스

아침부터 구름 많아 흐리겠다.

광주	흐림	0/12	보성	흐림	-3/13
목포	흐림	1/10	순천	흐림	-1/15
여수	흐림	4/14	영광	흐림	-2/10
나주	흐림	-3/12	진도	흐림	0/11
완도	흐림	3/13	전주	구름많음	0/11
구례	흐림	-4/13	군산	구름많음	-2/10
강진	흐림	-2/13	남원	구름많음	-4/11
해남	흐림	-3/12	흑산도	흐림	7/10
장성	흐림	-2/1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면바다(북)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면바다(남)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서부	안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면바다(서)	동~남동 1.0~2.0	북동~동	1.5~2.5
	면바다(동)	동~남동 0.5~1.5	북동~동	1.0~2.0

◇ 생활지수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21 19:05
여수	01:56 14:44	08:42 20:38

◇ 주간 날씨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1/1(수)
☁	☀	☀	☁	☀	☀	☀
3/6	0/5	-1/9	2/8	5/10	-2/3	-3/5

국가 지정 '광주·전남 통합 암센터' 내년 출범

화순전남대병원의 국가 지정 '전남지역암센터'가 내년부터 '광주·전남지역암센터'로 통합출범한다.

이로써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과 함께 유일하게 지역암센터가 없던 광주시도 비로소 국가 지정 지역암센터로 갖게 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계자, 의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에서 현판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이

후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의 지원 아래 암진료와 연구·암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해 온 전남지역암센터는 내년부터 '광주·전남지역암센터'로 위상과 역할이 확대된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암센터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인력·예산도 늘어나 전남도와 함께 추진해왔던 각종 암 관리사업과 전남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내일부터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

2020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26일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부터 표준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를 통해 정시모집 대학입학원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4년제 대학은 26일부터 31일 사이에 3개 모집군 가운데 선택해 전형에 치를 수 있다. 전문대학은 30일부터 1월 1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표준 공통원서는 한 번 작성한 원서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애플라이 또는 진학애플라이 중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경찰대·사관학교 등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은 예외다. 수시모집 기간에 작성했던 회원 정보와 공통 정보가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